

박희태 - 조지력, 정몽준 - 여론조사 앞서

한나라당 오늘 全大... 당 대표 막판까지 '안갯속' 2강 2중 구도... 조직·여론조사·1인 2표제가 변수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 경선이 치러지는 7·3 전당 대회를 하루 앞둔 2일까지도 각 후보 진영마다 경선결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다.

6명의 주자중 화합형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박희태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게 각 진영의 공통된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박희태 대세론'도 나온다.

박 후보가 70%가 반영되는 대의원 선거에서 30%대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상승세를 보여 차기 당대표에 가장 근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가 아직 절대적 안전권에 접어들

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선거 초반 구도였던 박희태, 정몽준 후보의 '2강 2중' 구도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측은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와의 격차를 5%포인트 이내로 보고 있다. 전당대회 당일의 정견발표, 일반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표차라는 것이다.

또한 정몽준, 허태열, 공성진 후보의 2~4위 순위 다툼이 혼전에 가깝다는 관측도 있다.

일각의 '2강 2중' 관측과 달리 전당대회가 임박할수록 '1강 3중'의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허태열, 공성진 후보 진영은 '박희태 후보에 이어 2

위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7·3 전당의 현장 분위기와 함께 이날 오후 5시부터 실시될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가운데 20% 가량이 현장에서 자신이 찍을 후보를 결정하는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만큼 각 후보의 정견발표 내용 등이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첨에 의해 선정된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이날 오후 5시부터 5시간 동안 전화면접으로 일반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여론조사 역시 대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1인 2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경선후보들은 이날 부산MBC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마지막 설전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를 끌어안기 위한 '구애'가 경쟁적으로 펼쳐졌고, 미국에 유학중인 이재오 전 의원의 전대 개입론이 제기돼 토론회장을 달구기도 했다.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공동대표가 인민석 의원과 함께 7·5 촛불문화제 관련 정당·종교·시민단체 원탁회의 제안서를 살펴보고 있다.

민주, 5일 촛불집회 대거 참여키로

사실상 마지막 장외투쟁...孫대표 단상 연설도 검토

통합민주당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참여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오는 5일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 집회에 거창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촛불집회가 쇠고기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장외투쟁을 통해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달 10일 이래 처음으로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를 비롯해 원내 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손

대표가 단상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대책회의의 촉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일 합동 촛불대집회는 국민의 힘을 총집결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우리당이 적극 참여하고 평화 기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당 차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결정한 것은 정부 고시 이후 종교계까지 촛불집회에 가세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집회 주최 측도 비

폭력 저항운동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당 관계자는 "사제단이 촛불집회에 참가함으로써 민주당 개별원들이 현장의 '국민보호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시위모델 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거창적 참여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날 집회 참가가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마지막 '거리 정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6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국회 등원에 대한 결단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분기별 업무추진비 공개 광주시의회 조례 추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일 나종천 등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의원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분기마다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10일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다.

조례안은 또 접대성 경비집행, 물품 구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했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1회에 4만원 이하로 정했다. 현금 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으로 제한했고 이 때에도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세균 - 추미애 '정체성' 공방

■ 통합민주당 全大 D-3

秋 "한나라와 차이 없다" 丁 "흑색선전 말라" 秋-鄭 단일화 협상 착수...5일까지 결론 낼 듯

중반전에 접어들 통합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정세균, 추미애 후보의 정면충돌, 추미애-정대철 후보의 단일화 협상 착수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열린 MBC 통합민주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정체성 문제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추미애 후보는 정세균 후보에게 "민주당 지지층은 한나라당과 다른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별 차이도 없다"며 "야당 대표를 하기에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정세균 후보는 "아무리 열세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상대후보를 마치 한나라당 사람 취급하듯이 덮어 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미애 후보는 "당 대표는 노선이나 이념에 있어서 다른 당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달라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제기하시라

저도 법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정체성 등을 주제로 한 양측의 격돌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본격화됐다.

먼저 추 후보 측은 천정배 선대위원장에게 "당내 기득권 강화와 짝퉁 한나라당식 정책 노선의 중심에 있었던 후보가 구시대적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세균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정세균 후보 측은 윤호중 대변인이 "10여년을 함께 해온 동지의 등에 비수를 꽂은 망언"이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이낙연 의원은 회동 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만남은 단일화의 의지를 대의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도 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자는 입장인 만큼 단일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미애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는 오는 5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결선 투표 과정에서 단일화가 상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령하게 했다.

"정세균 대세론"을 보는 양측의 시각도 정반대다.

추 후보는 "(정세균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대세론이나"며 흔들고 있고, 정세균 후보는 "대의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 등 개혁성향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추미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계기로 당 안팎에서는 '정세균 대세론'이 다소 주춤해 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 후보 측은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가.

한편, 추미애 후보의 천정배 선대위원장과 정대철 후보의 이낙연 선대위원장 등 양측 캠프의 각 3인은 2일 오후 여의도 레싱턴호텔에서 회동, 첫 단일화 협상을 벌였다.

이낙연 의원은 회동 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만남은 단일화의 의지를 대의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도 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자는 입장인 만큼 단일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미애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는 오는 5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결선 투표 과정에서 단일화가 상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해남군의회 의장 김창환씨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창환(58 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종록 의원(54)과 함께 재직의원 11명 중 5표(1표는 무효)를 얻었으나 연장자 당선 원칙에 따라 의장으로 뽑혔다. 부의장에는 박철환(49) 의원이 선출됐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그림 한번 그려 보겠다"

정동영 어제 미국행...듀크대서 6개월간 연수



대선과 총선의 잇단 참패로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부인 민혜경씨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위대한 능력을 잘 뽑아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훌륭한 정치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고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 제 나름대로 그림을 한 번 그려 보겠다"고 재기의 의

지를 다졌다.

최근 지방 산사 등에 머물며 '묵언수행'을 해 온 그는 한결 여유로워진 표정이었다. 두달 전부터 대체의학인 팔상의학에 심취, 채식만 해오고 있다.

그는 "13년간 정치하면서 후보로 선거 나온 게 9번, 당 의장으로 선거 치른 게 2번 등 총 11번의 선거를 치렀으니 진이 빠질 만 하다. 그동안 능력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이제 기를 보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계 복귀 시점에 대해선 "물 흐르는데로 하려고 한다. 가서 좋은 좀 더 있어 보고..."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에서 6개월간 초청교수 자격으로 머물며 연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중국 청화대(淸華大)에서 6개월간 연수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p>(주) 조아트레빌</p> <p>334-3222</p> <p>▶ 합동/백두산 4월 669,000</p> <p>▶ 합동/백두산/단풍 5월 739,000</p> <p>▶ 삼재/합주/백두산 4월 469,000</p> <p>▶ 북경 핵심입주 4월 299,000</p> <p>▶ 합동/백두산/단풍 4월 239,000</p>	<p>합동/백두산 4월 669,000</p> <p>합동/백두산/단풍 5월 739,000</p> <p>삼재/합주/백두산 4월 469,000</p> <p>북경 핵심입주 4월 299,000</p>	<p>합동/백두산 4월 669,000</p> <p>합동/백두산/단풍 5월 739,000</p> <p>삼재/합주/백두산 4월 469,000</p> <p>북경 핵심입주 4월 299,000</p>	<p>합동/백두산 4월 669,000</p> <p>합동/백두산/단풍 5월 739,000</p> <p>삼재/합주/백두산 4월 469,000</p> <p>북경 핵심입주 4월 299,000</p>
--	--	--	--